

# 尹孤山の 漢詩賦 研究序

權 斗 煥\*

## 1

孤山 尹善道[1587~1671]의 時調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이있는 研究가 계속되어 왔고, 그 빛나는 成果로서 많은 論文과 수종의 著書가 集積되었다.

이들 研究 成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孤山の 時調에 나타난 國語美・表現美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鄭寅普(1955) 李在秀(1955) 金思燁(1956) 등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여기에다 自然美의 發見을 추가한 趙潤濟(1955) 朴晟義(1957) 尹星根(1970) 등을 들 수 있고, 셋째는 作品의 內面을 진지하게 파고 든 崔珍源(1966) 尹在根(1969)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鄭炳昱教授는 孤山 尹善道를 論하는 글 속에서 <우리의 역사상에 서 손꼽히는 지성인으로서 그 인물이 「정치인+학자+문학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고 또한 그들의 생활이 「출사+유배+은둔」이라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고 전제하고, 孤山 尹善道는 특히 이러한 인물과 생활적인 類型性의 <立體的인 특징>을 지닌 흔하지 않은 例라고 지적하였다.<sup>1)</sup>

이 글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知性史를 따로 기술한다면 그가 시조시인인 동시에 정치인이고 아울러 학자였다는 사실을 꼭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論旨에 입각한 것이지만, 文學家로서의 孤山 尹善道를 研究해 온 지금까지의 一般的인 態度를 반성함에 있어서도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윤고산은 정치인·학자·시인이라는 세개의 인물이 한 몸

\* 同德女大 教授(博士課程, 國文學專攻)

1) 鄭炳昱: '孤山 尹善道' 「文學思想」1974년 1월호, pp. 293~300.

똥이 속에 寓居했던 인물>이며, <이 세 인물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세 인물의 갈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었고 그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의 실체가 바로 孤山 尹善道라는 인물>이었다는 지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孤山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態度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人間과 文學(좀혀서 말하면 作家와 作品)을 다루는 觀點과 方法에 대한 반성이 그것이다. 우리가 孤山이라는 人物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우수한 作品을 남긴 까닭이다. 그러나, 일단 우수한 時調를 창작한 作家 孤山에 주목한 후에 우리는 어떠한 觀點에서 어떠한 方法으로 그에 대한 研究를 진행하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家系와 生涯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人格의 片鱗을 추정해 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作家의 年譜와 作品의 創作年代를 적당히 연결시킨 것으로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作品에 주목하고 作家에 관심을 기울였을 때, 作家와 作品에 대한 相互 有機的인 論述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 하는 反省은 비단 孤山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못 심각하다.

둘째로, 文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에 대한 反省이 그것이다. 예컨대 孤山처럼 政治와 學問과 文學을 겸한 作家의 경우, 文學과 政治 또는 文學과 學問 또는 文學과 政治와 學問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相互 有機的인 關聯을 맺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앞서 말한 作家와 作品을 다루는 觀點과 方法을 反省하는 질문들의 하나로 채택될 수도 있으나, 孤山이 文學과 政治와 學問을 겸했던 대부분의 朝鮮朝 文人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孤山의 時調는 모두 유배 생활 내지는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出仕는 表面이고 유배 내지는 은둔은 裏面이 될 것인데,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逆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孤山의 경우 時調만이 文學의 全部였던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反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은 곧 孤山 尹善道에 대한 研究가 지녀야 할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孤山이 남긴 文學的 遺産이 더 이상 一方的이고 皮相的인 資料 選擇에 의해서 정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孤山이라는 인물의 全貌를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가 남긴 모든 文字行爲에 대해서 주목하여야만 할 것이다. 孤山은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文字行爲를 행하였고, 그 行爲가 〈孤山先生遺稿〉 六卷에 정리되어 있다.

어떤 人間이 행한 文字行爲가 그의 思想과 學問 나아가서는 人間 自體를 說明해 주는 열쇠가 된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孤山の 生涯와 文學을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치적으로 그의 文集을 정밀하게 분석 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2

본고는 위에서 밝힌 觀點을 토대로 孤山の 漢詩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되풀이 말하면, 孤山이 詩語로서의 韓國語의 가능성을 입증해 준 최고의 시인이었다는 점, 그의 時調속에 녹아 든 自然美가 韓國的 文學性的한 典型이 된다는 점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孤山으로 하여금 「정치인+학자+문학가」일 수 있게 한 바탕은 넓은 意味의 漢文이었고, 그의 文字行爲가 대부분 漢文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孤山이 國文과 漢文이라는 두가지 言語媒體를 사용하여 文字行爲를 행하였다고 해서 孤山の 兩面性을 말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孤山の 경우 國文과 漢文은 서로 미묘한 갈등을 일으켰던 記號體系일 수도 있고, 相互 補完의 기능을 수행했던 記號體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孤山の 文學行爲가 지닌 특질은 그의 文學行爲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觀點에서 孤山の 모든 文字行爲를 분석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지만, 우선 그 논의를 漢詩에 한정시켜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朝鮮朝의 政治・學問・文學의 전체가 漢文이었고 그 중에서도 漢詩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漢詩는 文學家로서의 孤山뿐만 아니라 政治人 내지는 學者로서의 孤山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準據로서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當代의 漢詩는 時調와 마찬가지로 士大夫 階層이 享有하던 文學樣式이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들이 相互 競爭의인 樣相을 띄고 있었는지 또는 相互 補完의인 位置를 지니고 있었는지의 與否에 대해서는 또다른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孤山의 경우 時調가 「은둔+유배」의 產物이라면 漢詩는 「출사+은둔+유배」의 產物로서 보다 폭넓은 文學性이 內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다.

셋째로 山積해 있는 先人들의 漢詩에 대한 研究에 있어서 한 起點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詩話에 대한 研究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學界의 動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韓國 詩話가 지니고 있는 詩學으로서의 水準, 中國 詩話와의 관련 등의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韓國 漢詩의 特質은 自明해 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詩話가 <두루 시에 관한 것이면 내용이나 체제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논술하고 評鑑하고 品截하며 그와 관련된 奇聞軼事도 기록하는 것><sup>2)</sup>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詩의 一般論을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詩 그리고 詩話 즉, 作品이 있는 연후의 批評이라는 先後關係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詩話의 정리에 못지 않게 漢詩를 主對象으로 한 研究가 요청되는 것이다. 물론 漢詩에 대한 몇몇 勞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先人들의 詩話와 漢詩를 附會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는 論及들이 散見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孤山의 漢詩에 대한 詩話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은 孤山의 漢詩기 보잘 것이 없는 수준의 것이라는 反證이 될 수도 있다. 孤山의 漢詩가 동사

2) 歐陽修:「六一詩話」(何文煥 訂: 歷代詩話, 臺北, 藝文印書館, pp. 156~162) 참조.

대 내지는 후세의 평가를 받을 만한 훌륭한 작품들이었다고 하면 그의 漢詩에 대한 詩話가 남아 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論理이다. 그러나, 孤山の 漢詩에 대한 詩話가 없다는 사실이 진정 不遇하기만 했던 한 詩人의 斷面을 보여 주는 反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眞相은 孤山の 漢詩만이 說明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孤山の 漢詩에 대한 研究는 孤山の 時調에 대한 研究를 補完해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것은 둘째 번의 이유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그 전망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孤山은 14歲(宣祖 33, 庚子)때부터 漢詩를 창작하고 있지만, 「遣懷謠 5首」「雨後謠 1首」와 같은 時調를 창작한 것은 31歲(光海 9, 丁巳)때였다. 이러한 時間上的 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漢詩와 時調가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허용되었던 文學樣式이라고 한다면, 漢詩를 먼저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漢詩는 쉽고 時調는 어려운 文學樣式인가? 漢詩와 時調는 그 表現媒體의 구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인가? 孤山이 漢詩를 통해 쌓은 文學修業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은 곧 時調와 연결되고 있는가? 孤山이 國文이라는 記號體系를 통해서 時調만 선택하고 歌辭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그와 자주 比肩되는 松江 鄭澈이 「출사+유배+은둔」의 생활을 통하여 훌륭한 歌辭들을 창작한 사실을 고려할 때 孤山에게 있어서의 時調라는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孤山の 時調에 대한 지금까지의 研究 成果를 고려하면서, 그의 漢詩를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孤山先生遺稿〉<sup>3)</sup>에 의하면, 孤山은 259篇의 漢詩와 4篇의 賦를 남긴 것으로 된다. 〈孤山先生遺稿〉卷一에 252篇 358首의 詩가 전하고 卷六上에 7篇의 詩와 4篇의 賦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漢詩에 관한 詩話는 거의 남아 있지

3) 「孤山先生遺稿」(李朝名賢集 3, 成大 大東文化研究所, 1973)

않고, 同時代의 다른 漢詩 作家들과 비교하면 그의 作品 篇數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그의 漢詩에 대한 言及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

孤山은 그 25歲(1611, 辛亥, 光海 3) 되던 해 11월에 鄉里인 海南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그가 長成한 이후 첫 歸鄉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는 이 때 〈南歸記行〉이라는 詩를 創作하였다. 七言排律의 122行에 달하는 大作으로서 國文으로 창작하였다면 長篇의 記行歌辭가 되었을직한 작품이다.

그런데 疏菴 林叙英이 이 작품을 보고 〈筆力이 雄健하여 當世의 名作이라〉<sup>4)</sup>고 評한 기록이 있다. 筆力雄健이란 압축된 표현이 어느 정도의 意味를 부여한 것인지, 또 評者인 疏菴이 어느 정도의 批評眼을 지녔던 것인지는 〈南歸記行〉이라는 詩 自體가 설명해 줄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소개에 그치기로 한다.

그리고, 「黔翁志林」에 〈尹孤山 善道의 詩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作法을 案出하여 마음대로 짓되 뛰어난 바 있어 사람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했다〉<sup>5)</sup>는 記錄이 남아 있다. 이 記錄이 믿을 만하다면, 바로 孤山의 漢詩를 研究하는 하나의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孤山의 漢文에 대한 評으로는 谿谷 張維의 것이 있다.

孤山이 42歲(1628, 戊辰, 仁祖 6) 되던 해 봄 別試 初試에 첫째로 뽑혔는데, 당시 試官이던 谿谷이 〈東國 第一策이다. 기쁨과 찬사를 아낄 수 없다.〉<sup>6)</sup>고 하였다. 또 仁祖가 師傅를 구함에 谿谷이 〈尹某는 文章과 見識이 진실로 當代 선비들의 우두머리〉<sup>7)</sup>라고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에 孤山은 鳳林 麟平 양 대관의 師傅가 되었으며, 5年 동안이나 이례적으로 師傅와 官職의 兼職 特命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孤山은 漢詩文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當代의 認定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筆力雄健 名世之作』(上揭書, p. 824)

5) 林叙養, 『松江 齋溪 孤山의 詩歌文學』玄岩社, 1972. p. 506에서 再引.

6) 『春魁別試初試 張公維掌試得公策 謂之東國第一策 歡賞不已』(「年譜」卷之一, p. 827).

7) 『上命極擇師傅 必以時望第一 銓長張公曰 尹某文章見識 眞當代通儒首 以公應旨』(「年譜」卷之一, p. 828)

한편, 孤山은 그 자신의 詩觀을 펴려한 일이 있어 주목된다. 孤山の 44歲(1630, 庚午, 仁祖 8)때의 일이다. 鳳林大君이 唐詩를 보내면서 校選을 청하였을 때, 孤山은 다음과 같이 詩를 설명하였다.

詩라는 것은 性情을 읊어 精神에 流通하는 것이니, 알지 못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백성들의 常道와 사물의 이치가 담긴 詩는 읽으면 行實에 유익하며, 능히 人情과 物態를 말한 것을 보면 많은 知識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의 경계됨이 부족한 詩와 선한 것의 족히 法되지 못한 詩는 모두 程子가 이른바 한가한 言語이니 불만한 것이 못됩니다.<sup>8)</sup>

이것은 孤山이 그의 弟子인 鳳林大君에게 詩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制約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孤山이 비교적 公利主義에 가까운 詩觀을 지녔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孤山이 兩大君을 가르치되 「小學」으로써 근본을 삼았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는 바대로 「小學」은 宋代의 劉子澄이 그의 스승 朱熹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小兒들을 위한 修身書이다. 다시 말하면, 朱子學의 근본 원리를 日常生活의 조그마한 부분에까지 알기 쉽게 적용시키려 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孤山이 말한 詩觀 역시 이 책이 지닌 바 性格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즉 孤山の 詩觀은 當代文學觀의 한 主流라고 할 수 있는 朱子學의 文學觀에 對應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詩는 載道之器이며 風教에 이익됨이 있어야 한다는 公利主義 詩觀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 작가의 詩觀과 그가 쓴 詩가 꼭 附合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孤山の 漢詩가 어느 정도 그의 詩觀에 附合되는 것인지, 어떤 變貌의 樣相을 지니게 되는 것인지의 與否는 그의 漢詩가 설명해 줄 일이다.

8) 『詩者所以吟詠性情 流通精神 不可以不知者也 然其有關於民彝物則者 讀之有利行之益 其愆於人情物態者 賢之爲多識之資而 其惡之不足以爲戒 善之不足以爲法者 皆程子所謂閑言語 固無足觀也』(『送一大君房掌務書』, 「遺稿」卷之三上, p. 680)

## 4

한편, 孤山의 漢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떠한 漢文 修業을 받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孤山은 널리 소개된 바와 같이 8歲(1594, 甲午, 宣祖 27) 되던 해 生家를 떠나 伯父 唯幾의 집에 나아가 海南 尹氏의 大宗을 잇게 되었다.

그의 漢文 修業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시작되었을 것이나 자세한 기록이 없고, 다만 그의 年譜에 의하면 11歲때 山寺에서 讀書하였다는 記錄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20歲 때의 記錄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經史를 探索하여 一字一句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며 莊馬 等の 책은 즐겨하지 않았다고 한다. 孤山이 가장 즐겨 읽고 아낀 「小學」을 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20歲 때의 일이라고 한다.

「小學」을 長成한 후에 접하게 된 이유는 己卯士禍 後에 세상에서 크게 禁하게 된 까닭이었다. 孤山은 집안에 전해 오는 舊帙 가운데서 이 책을 얻게 되자 심히 기뻐하고 精讀하여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매일 6, 7 行씩 日課로 삼아 백번씩 읽는 것을 한도로 하였고, 혹 바쁜 일이 있을 때 도 꼭 같이 행하였으니 그 독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의 年譜에는 <평생에 힘을 얻은 根源이 이 책이며, 文章을 지음에 오로지 理趣를 숭상하고 辭句가 화려한 것은 끊어 버렸다>고 附記한 것이 있으니, 「小學」이 孤山에게 끼친 影響과 孤山이 「小學」에 진 빚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sup>9)</sup>

孤山이 26歲(1612, 壬子, 光海 4) 되던 해의 기록으로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公이 小學을 독심하게 밝히고 몸소 실천한 지도 수년이 지났다. 이에 옛말을 따라 經傳을 다시 찾아서 밝히니 문득 깨달음이 얻음이 녹는 것처럼 의혹이 풀리어

9) 『公自幼深究經史 一字一句未嘗放過 先生長者皆以大儒期之性 不喜莊馬筆書 己卯士禍後小學書爲世大禁 公於舊帙中得之甚喜曰 眞做人棟子 遂專精玩讀不取逐逐日課六七行百遍爲程而 或外慮間之輒不等 其篤實如此 平生得力蓋原於此 爲文章專尙理趣絕去辭華』(『年譜』卷之一, p. 824)



다. 그러나, 스스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訓詁함으로써 醫藥卜筮陰陽地理에 관한 책에 대해서도 두루 관통하였다.<sup>10)</sup>

이로 미루어 보면, 孤山은 經史에서 출발하여 小學에서 一家를 이루었고, 다시 經傳으로 돌아가 醫藥卜筮陰陽地理에까지 能通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孤山과 「小學」과의邂逅는 孤山 研究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孤山이 「小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기 때문이다.

즉 孤山은 그 42歲 되던 해에 張維의 추천을 얻어 兩 大君의 師傅가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小學」을 가르치도록 청하였고, 그후 이 책은 講學의 근본이 되었던 것이다.<sup>11)</sup>

中宗代의 趙光祖가 朱子學에 따라 종전의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혁할 것을 시도하고 風俗 慣習까지 바꾸려 하다가 詞章派와 保守 勳舊派의 의하여 去勢된 己卯士禍 이래 금지된 것으로 보이는 「小學」이 孤山에 의해 다시 宮中에까지 講學의 基本書로 채택되었던 것을 보면, 孤山의 「小學」에 대한 信賴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책이 孤山으로 하여금 文章을 지움에 있어서 理題를 숭상하게 하고 辭句의 화려함을 버리게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小學」은 孤山에게 있어서 實踐窮行의 原理이자 文章修練의 規範이 되었던 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孤山은 「小學」을 통하여 朱子學에 入門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朱子學的 世界觀은 그의 文字行爲들 가운데 수많은 疏와 序 가운데 散見된다. 그의 詩觀과 함께 이 방면의 보다 깊은 검토가 앞으로의 課題가 될 것이다.

한편, 그의 詩作 修業에 대해서는 아무런 端緒도 찾기 어렵다. 그 片鱗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그가 남긴 漢詩 가운데 集古 7篇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初年の 作이 1篇, 老後의 作이 6篇 전해지고 있다.

孤山이 21歲 되던 해에 당시의 詩友라고 짐작되는 李明遠에게 부치는 集

10) 『公篤信小學體認數年矣 復就舊識經傳更加尋釋便覺渙然 其於自得處不拘訓詁以 至醫藥卜筮陰陽地理之書 亦皆傍通而淹貫焉』(「年譜」卷之一, p. 824)

11) 『公 啓請先授小學 講學之禮一遵古人成法』(「年譜」卷之一, p. 828)

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附記되어 있다.

서리의 위세가 대단한데 거동은 어떠신지요. 말하고 싶은 所懷를 무묘히 古句로 모아 보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이른바 難題를 버리고 古人의 詩를 돌이켜 생각함입니다. 가히 조용한 가운데 한 웃음거리나 될는지요.<sup>12)</sup>

이로 미루어 보면, 孤山은 古人의 詩句를 모아서 한 篇의 詩를 再構成하는 集古라는 形式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 懷抱를 表現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古人의 詩라고 하는 것이 전부 中國 詩人의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이 集古라는 形式이 단순히 古人의 詩句를 모은 것이 아니라 一貫된 主題를 향하여 再構成되면서 그 文學性을 유지하자면, 여기 모아진 古人의 詩句라는 것은 곧 孤山의 情緒 내지는 詩意에 一字一句 附合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모아진 一字一句는 任意의 것이 아니라 選擇된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슷한 詩意를 지닌 수많은 詩句들 가운데 精選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孤山은 여기 모아진 古人들과 그들이 쓴 詩에 대하여 精通해야만 하고, 그들의 詩句를 自由自在를 取捨選擇하고 精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孤山이 中國 漢詩를 배우고 익혀서 그의 詩作 修業을 쌓았다는 사실을 看取할 수 있으며, 그의 詩作 修業이 지닌 바 內容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가 남긴 7篇의 集古에 보이는 中國 詩人을 集計해 보면 총 52인이 된다.

그 가운데 빈도수가 많은 詩人부터 열거해 보면, 蘇子瞻(12회) 杜子美(11회) 李太白(8회) 韋應物(8회) 韓退之(7회) 劉文房(4회) 孟浩然·溫庭筠(각 3회)의 順序를 보인다. 그리고 高適 盧仝 柳子厚 白樂天 王維 李商隱 鄭谷 陳去非 韓君平 許渾 등이 2회씩 나타난다. 그밖에 高駢 高千里 顧況 歐陽永叙 駱賓王 陶淵明 唐彥謙 杜荀鶴 羅朋 馬子才 邵謁 楊仲師 嚴維 吳祈 吳植

12) 『霜威比劍 雅履何如 顧言之懷 聊集古句 此正所謂難題却憶古人詩者也 可供靜中之一笑』(『遺稿』卷之一, p. 560)

吳澄 于武陵 魏野 元微之 劉禹錫 李賈 李群玉 李頎 李長吉 張文潛 李端 任  
 勳 朱文公 秦公緒 陳伯玉 崔峒 黃庭經 儲光義 (無名氏) 등의 詩句가 1회씩  
 보인다.

이 52人은 다시 唐·宋의 詩人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인데, 수적으  
 로는 唐의 詩人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곧 唐詩로부터 얻은 것  
 이 더 많은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보다 확실한 결론을 얻자면 當  
 代의 詩作 修業이 지닌 內容의 普遍性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다른 漢詩  
 作家들의 詩作 修業 또는 集古에 나타나는 中國 詩人들의 影響이 檢討되어  
 야 할 것이다.

孤山보다 앞서 간 文學家 許筠은 「鶴山樵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  
 고 있다.

仲氏가 文章을 배우는 것을 논했는데 (…中略…) 詩에 있어서는 먼저 唐音을 읽  
 고 다음으로 李太白 蘇子瞻 杜甫의 詩를 읽되 그 才를 취할 따름이라고 하였다.<sup>18)</sup>

이 글의 仲氏는 바로 許筠의 仲兄인 許篈을 말한 것으로, 이러한 詩作 修  
 業의 方法은 當代에 있어서 어느 정도 一般性을 지니고 있었으리라고 믿어  
 진다.

孤山の 경우도 蘇子瞻 杜子美 李太白的 詩句를 가장 愛用한 것으로 나타  
 난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孤山の 集古에 2회 이상 나타난 詩人들의 特徵을 간략히 더듬어  
 보면, 우선 陶淵明의 流派로 알려진 孟浩然(3회) 王維(2회) 韋應物(8회) 柳  
 子厚 등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각기 다른 個性을 지니고 있어 그 이름을 세  
 율지만 自然에 대한 섬세한 감각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陶淵明과 함  
 께 自然派라는 指稱을 받는 詩人들이다. 혹 이러한 사실이 孤山の 漢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孤山の 時調를 논할 때 흔히 얘기되는 自然美  
 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杜子美(11회)와 高適(2회)은 時事에 관한 詩가 많아서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至情이 넘치는 詩人으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

13) 『仲氏論學文章 (…中略…) 爲詩則先讀唐音 次讀李白蘇杜 則取才而已』(許筠:  
 鶴山樵談)

고, 溫庭筠(3회) 李商隱(2회) 역시 當代에 溫李라고 불리워지며 愛情詩를 주로 창작했던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推斷이나 논리의 비약은 금물이다. 孤山이 中國 詩人들로 받아 들였으리라고 추측되는 모든 영향도 그의 漢詩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명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 5

한 作家의 詩作 修業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交友 關係일 것이다. 특히 詩作을 주고 받으며 交分을 두터이 했던 詩友의 存在는 한 詩人을 고무하여 詩作 意慾을 왕성하게 북돋아 주었으리라고 믿어진다.

孤山이 남긴 漢詩 259篇 가운데 次韻하여 쓴 詩는 65篇으로 集計된다.

이제 이 詩들을 根據로 하여 孤山의 詩友라고 할 수 있는 人物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孤山이 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授受關係는 論斷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孤山先生遺稿〉에는 몇몇 경우에 한해서 元韻이 밝혀져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元韻을 밝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韻字만 빌린 것인지 그 詩意나 詩想의 展開에까지 영향을 받은 것인지의 與否를 推定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孤山이 次韻한 상대방의 文集에도 孤山에 대한 記錄이나 詩·序 등이 남아 있어야 상호간의 연향 관계를 확연하게 살펴볼 수 있을 터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 文集이나 詩文의 拾遺는 물론 그 人物의 자세한 내력도 알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간단한 소개와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둘 수밖에 없는 일이다.

孤山이 漢陽에서 學業에 열중하고 있던 당시의 詩友로는 張子浩를 들 수 있다. 그와의 交友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것으로 나타난다. 즉 孤山이 17歲 때 쓴 詩題에 「代張子浩遊三角山寺 寄城中友生」이란 것이 있으므로 그 당시의 詩友들이 三角山에 놀러 가서 詩도 짓고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1歲 때는 張子浩의 詩에 次韻한 詩가 있고, 25歲 때는 張子浩가 呼韻하여 孤山

이 그 韻에 따라 作詩하여 그에게 증정한 詩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그들이 상당히 돈독한 友情을 나누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이어 孤山이 海南으로 歸郷하고, 다시 流配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은 격조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孤山이 41歲 되던 해에 다시 張子浩의 詩에 次韻한 詩가 보이고, 45歲 되던 해에 쓴 詩題에 「辛未三月與李子容張子浩泛舟由頭無浦沂流而上遊東湖三日乃還臨行自 內殿賜送酒饌子容爲樂主時也因賦得」이란 것이 있어 이때는 張子浩가 東湖(孤山)에 와서 사흘씩이나 배를 띄우고 즐겨 놀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題目에 보이는 李子容과 함께 셋이서 지은 聯句가 보이는 것으로 짐작하면 孤山과 張子浩는 詩로서 맺은 오랜 벗이었다고 하겠다.

張子浩에 이어 우연히 만나게 된 詩友로는 樂忘 金時讓이 있다. 孤山은 30歲 되던 해 12월에 이른바 「丙辰疏」를 올려 당시 禮曹判書이던 李爾瞻을 벌 줄 것을 청하였다가 도리어 慶源에 安置되는 바 되었다. 그 이듬해인 光海 9年(1617, 丁巳)에 孤山은 총 26篇 43首의 漢詩를 창작한 것이 남아 있는데; 이는 眞作인 孤山에게는 일생중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그 가운데 6篇 9首에 해당하는 작품이 金時讓의 작품에 次韻한 것이다. 金時讓도 그때에 鍾城에 流配되어 와 있었다고 하니, 孤山은 流配地에서 같은 처지의 知己를 만났던 셈이 된다. 光海 10年 겨울에 孤山은 慶尙道 機張으로 移配되었으므로 불과 1년 동안의 인연에 불과하였지만, 孤山은 金時讓에게 고무되어 詩作에 몰두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특히 이때 孤山은 「遺懷謠 5首」「雨後謠 1首」의 時調도 창작하고 있으므로 金時讓의 存在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機張에 移配된 뒤에는 이렇다 할 詩友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그리고 漢詩 창작도 보잘 것이 없는 것도 金時讓의 存在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 孤山の 南吉島를 얻게 된 것은 그 51歲 되던 해 2月이었다. 그 해 그는 南吉島의 景物을 소재로 13篇의 詩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 孤山은 徵召에 不應한다는 論이 일어나 盈德에 流配 당한다. 이때 孤山은 講所에서의 두번째 인연으로 季夏 李海昌을 알게 되었다. 그도 역시 淵

德에 流配 당해 있는 몸이었다. 孤山은 이 해에 15篇(20首)의 詩를 창작하였는데, 그 가운데 9篇이 季夏의 詩에 次韻한 것이었다. 일년을 못다 채우고 仁祖 17년(1639, 己卯) 二月에 孤山은 海南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들의 交友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孤山의 65, 66歲 때도 각 1首씩 季夏의 詩를 次韻하였다는 詩題가 보이는 까닭이다. 季夏는 또한 松坡居士라는 號도 가졌던 人物이며, 孤山의 詩題에 따르면 「赤壁歌」「大風歌」 등의 詩를 창작하였던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漢詩를 논할 수 있는 詩友의 한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伴琴 權海이다. 孤山 老年의 유일한 心友로 알려진 그는 특히 거문고 연주에 능했던 까닭에 孤山으로부터 伴琴이라는 號를 얻었다. 이후 그는 孤山으로부터 여러 篇의 詩·書를 증정받았으며 「贈伴琴 1首」라는 題下의 時調도 증정받았다. 그는 스스로 詩를 구하여 孤山으로 하여금 琴誠을 주제로 한 詩를 창작하게 한 人物이기도 하여 주목된다.

孤山은 金鎖洞·甫吉島 등의 새로운 景物과 伴琴 權海라는 心友를 얻게 되어 「山中新曲」「漁父四時詞」 등의 時調를 다듬게 되고 景物詩 및 거문고물 소재로 한 새로운 詩作 活動에 精進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것은 孤山 老年의 文學 活動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指標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된다.

이상에 소개한 인물 이외에도 孤山이 次韻하여 和答한 詩人은 15, 6名에 달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張子浩·金時讓·李海昌처럼 긴밀한 영향 관계는 보이지 않고, 한 두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老年의 李延之 衮, 龍州 趙公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孤山은 詩友를 만남에 있어서도 謫所 生活이나 歸鄉 生活에서만 가능했던 不遇한 詩人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오로지 孤山의 漢詩를 檢討하기에 앞서 고려해 두어야 할 觀點을 몇가지 정리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순서에 따

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孤山은 그가 남긴 時調만으로도 國文學史上 찬연히 빛나는 文學家이지만 그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遺産의 全貌——즉 그의 文學性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모든 文字行爲를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그가 남긴 모든 文字 行爲 중에서 본고는 특히 漢詩와 賦에 그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樣式이 時調와 對應되며 文學性이 優勢한 樣式으로 公認되었던 까닭이다.

3. 孤山은 經史를 위주로 漢文 修業을 했지만, 그 일생을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小學」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朱子學에 入門했다고 생각되며, 朱子學的 文學觀에 가까운 詩觀을 말한 記錄이 있다.

4. 詩에 관한 修練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中國 詩人과 그들이 쓴 詩로부터 얻은 素養이라고 할 수 있는데, 當代 내지는 朝鮮朝 全般에 걸쳐 영향을 끼쳤던 李太白·蘇子瞻·杜子美를 비롯하여 52인에 達하는 中國 詩人에 대하여 能通하였다고 추정된다. 특히 陶淵明의 流派로 일컬어지는 自然派 詩人 즉 孟浩然 王維 韋應物 柳子厚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國內 詩人들과 맺은 交分인데, 이는 실로 미미하고 우연히 講所에도 같은 처지의 文士를 만나 詩作을 교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이름을 기록해 둘만한 인물은 張子浩·金時讓·李海昌 등이다.

5. 이제 이러한 예비 검토에 이어서 孤山の 漢詩 研究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 方向은 아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① 孤山の 漢詩가 지닌 文學性
- ② 孤山の 漢詩와 時調의 關聯性
- ③ 孤山の 文學性이 지니는 총체적인 양상
- ④ 孤山の 韓國文學史上的 位置

參 考 文 獻

1. 「孤山先生遺稿」(李朝名賢集 3, 成大 大東文化研究所 1973)
2. 金思燁(1956), 「道學者的 歌曲觀」, 慶北大 論文集 I, pp. 1-41.
3. 朴晟義(1957), 孤山詩歌, 正音社.
4. 尹星根(1970), 「尹善道の 自然觀」, 문화비평 제 2 권 제 3·4호.
5. 尹在根(1969), 「詩的 表現의 背景과 變容(1)」, 문화비평 창간호.
6. 李在秀(1955), 尹孤山研究, 學友社.
7. 鄭炳昱(1974), 「孤山 尹善道」, 文學思想 1974년 1월호.
8. 鄭寅普(1955), 蒼園國學散藁, 文教社.
9. 趙潤濟(1955), 國文學概說, 大昌文化社.  
——(1954), 韓國詩歌史綱, 乙酉文化式.
10. 崔珍源(1966), 「孤山の 自然觀」, 成大「論文集」V. 10.